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Seoul Medical Center

서울의료원 플러스+

2014.1

vol.13

01 서울의료원 소식

02 서울의료원 이야기

03 새 가족소개

04 게시판

서울의료원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겨울, 나눔 이야기

Talk
하나

가락시장 영세 상인에게 독감백신 무료 접종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12월 16일(월) 오전 10시 강남분원에서 가락시장 영세 유통인 200여 명에게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했다.

무료 접종에 앞서 서울의료원,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식품공사 4층 기획상황실에서 향후 환자의뢰 협조, 의료시설 이용, 건강강좌 지원, 장례식장 이용 등 포괄적 의료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무료접종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선정한 200여 명의 영세 유통인, 고령의 상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의료원은 접종 시 필요한 의료·행정인력과 접종비용을 지원했고, 농수산식품공사는 독감백신의 구입 실비를 지급했다. 특히 서울의료원은 이번 예방접종을 위해 의사 1명, 간호사 4명, 행정 3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팀을 파견해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함께 진행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법 테두리에서도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이 많다”며 “2014년에는 서울의료원 후원회(사단법인 다사랑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 말했다.

Talk
두글

다사랑회 발족기념 나눔행사

새롭게 출범한 서울의료원 후원회 '사단법인 다사랑회'는 지난 12월 26일(목)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사랑회 출범 이후 이루어지는 첫 공식행사로 동북권 지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과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회원들이 수혜자를 직접 방문해 총 130가구에 10kg 쌀 110포대, 구급함 110세트, 연탄 6,000장(가구당 200장)을 지원했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모임체로 시작한 다사랑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지난 12월 3일(화)에 보다 많은 재원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공익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다사랑회 성상현 회장(대한공공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데 다사랑회 회원들이 숭선수범하여 나눔의 분위기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 서울시설공단, 장례문화 개선 위한 MOU 체결



서울의료원은 화장 선호시대에 맞는 장례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지난 12월 5일(목) 서울추모공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돼 전국 화장률은 74%, 서울의 경우 80%를 넘었으나 장례비용은 줄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매장용 장례 용품을 화장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화장용 장례 용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두 기관은 분석했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설공단은 각자 운영하고 있는 화장 시설과 장례식장이 협력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올바른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에서부터 화장 절차 전반을 안내한다. 화장 시설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는 봉안함(납골함)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미리 홍보함으로써 유족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유족들이 매장용 관이나 매장 시 고인에게 입히는 삼배수의 대신 저렴한 친환경적인 화장용 관과 수의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장례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EVENT

홀몸 어르신 송년위안 행사



간호부는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중랑구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초청해 위로해드리고 송년위안 행사를 지난 12월 12일(목) 오후 1시에 진행했다.

김민기 의료원장과 양순재 의무부원장이 참석하여 홀몸 어르신 30여 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말벗이 되어드렸다. 식사 후에는 변점숙 파트장이 웃음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했다.

심장 건강을 위한 더샵 콘서트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6일(금)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및 환자 가족을 위한 '더샵 콘서트' 건강 강좌를 개최했다.

더샵 콘서트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퇴원 환자의 8.1%가 1년 내 사망에 이르는 것에 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질환 관리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의 건강강좌 프로그램이다.

더샵 콘서트는 더 많은 사람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상과 음

악을 접목시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강좌에는 김석연 심혈관센터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더샵 콘서트 교육 강좌는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 대처법 △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심근경색 관리법 등을 주제로 총 1시간가량 진행됐다.

강좌 전후에는 무료 혈관 나이 측정 검진 행사, 콘서트 중간에는 디지털 체중계를 경품으로 건 OX 퀴즈 이벤트 등 강연에 참석한 환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풍성하게 열렸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는 견과류와 두유로 구성된 영양간식이 제공됐다.

이번 강연을 진행한 김석연 심혈관센터장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재발 위험뿐만 아니라 재발로 인한 사망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서울의료원이 예방적 차원의 질환 교육으로 서울시민들의 심장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

제9회 QI 경진대회 개최



서울의료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 12일(목) 4층 대강당에서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민기 의료원장의 격려사와 심사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본선에 진출한 총 10팀의 우수사례 구연발표가 이어졌다.

경진대회 구연심사 결과, '의료장비 관리 개선활동'을 주제를 발표한 중환자실 홍영실 간호사가 최우수상, '재환 환자의 변비 완화를 위한 복부마사지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최수연 간호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MBC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 병원 촬영



지난 12월 23일(월) 첫 방송을 시작한 MBC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의 병원 장면을 서울의료원에서 촬영했다. 이번 드라마는 가슴으로 맺어진 비혈연 가족이 사랑과 일에서 성공을 이루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서울의료원의 촬영은 병원 외관, 진료실 복도 등 다수의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극중 태식(윤희석)이 인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촬영은 지난 11월 30일(토)에 진행되었으며,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원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 서울의료원 촬영 장면은 지난 12월 24일(화) 저녁 19시 15분에 방송되었다.

협력병원 실무자 간담회 개최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23일(월) 4층 대회의실에서 협력병원의 의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객지원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72개 협력병원의 진료 의뢰 관련 실무자 100여 명이 모여 병원 간의 의료정보 공유와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연 진료부장은 “서울의료원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 병·의원의 신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협력 병·의원과 보다 원활한 연계진료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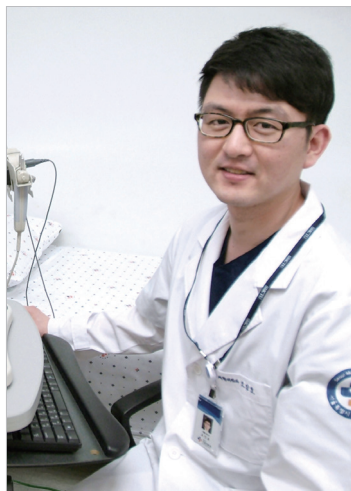




새 가족 소개 I

재활의학센터 조인호 임상병리사

서울의료원의 진정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부로 서울의료원 재활의학센터로 발령 받은 임상병리사 조인호입니다. 이곳을 오기 전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근전도 검사실에서 근무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행운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상하지 신경뿌리병증, 신경얼기병증 당노로 인한 말초신경의 손상, 손목터널증후군, 주관절터널증후군 등의 말초신경 전도 검사이며 중추신경계의 유발전위 검사, 뇌자기자극 검사, 체온열 검사, 정량적감각기능 검사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전도검사실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어느 정도의 통증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때문

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검사 중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진행하면서 항상 환자분께 이런저런 답소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자마다 검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검사의 특성상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 받은 결과를 다른 병원에 제출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몇몇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4년 만에 공공의료의 중심인 서울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은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서툴고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의료원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가족 소개 II

응급의료센터 박미정 간호사

서울의료원 동료들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학생 때 실습했던 병원으로 쾌적한 환경과 친절간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기억에 남아 꼭 일하고 싶었던 병원이라 합격이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첫째 날은 오리엔테이션과 공급실 실습을 하였고 둘째 날에 부서배치를 받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침착해 보이시는 파트장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외래 팀장님을 뵈고 나니 진짜 서울의료원에 소속된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간호 일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저를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했던 설명을 또 해주시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의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시려는 모습을 통해 나만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외래간호팀 소속으로 외래진료의 시간 내 또는 시간 외의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응급 처치를 하는 곳으로 환자분들이 처음 접하는 병원의 얼굴입니다. 응급상황 속에서도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일상분란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시며 상호 협력하시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듯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3교대라는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아껴주며 진심으로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저도 함께 동행하고 싶고 오래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医료를 행하는 서울의료원에서 힘찬 도약을 꿈꾸며 또 하루를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환자안심병원 이야기, 제7회 서울사랑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에 관한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공모한 제7회 서울사랑 공모전에서 이야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 환자안심병원 이야기를 쓴 이 씨는 지난 7월 환자안심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보호자로서 건강상태가 위급한 어머니를 대신 돌봐 준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공모전 당선 작품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공모전 홈페이지인 와우서울(wow.seoul.g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씨는 글을 통해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가 쓰러져서 고심했지만, 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원 서비스로 어머니도 건강을 찾고 저의 조그만 가게도 자리를 잡았다”면서 “저 대신 어머니를 돌봐 주셨던 서울의료원 간호사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1회 서울의료원 공공의료심포지엄 개최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4층 대강당에서 노숙인 등 의료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서울의료원 공공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노숙인의 질병 양상(최영아 과장, 도티병원 내과) △노숙인의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이수범 사무국장, 다시서기센터) △삶의 만족, 건강찾기(전익형 실장, 쉼터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등을 비롯한 1부 행사와 △노숙인 등 건강 정책 제언 관련 토론(주영수 교수, 한림대 의과대학)으로 2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양순재 의무부원장은 “서울시, 보건의료인, 현장전문가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자리를 통해 문제인식과 발전방향의 공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자 감사편지

산부인과 조숙 선생님께



지난 이주일 돌봐주셨던 김광임 환자의 남편입니다.

선생님의 자상한 보살핌 덕분에 입원기간 내내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었기에 제 처와 가족 모두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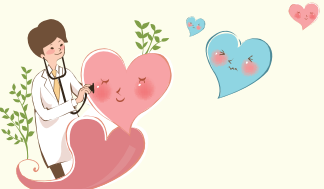
종합병원의 회진을 보고 있노라면 편안함보다는 권위적이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환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지식을 영어로 지시 내리는 모습을 보는 환자와 보호자는 불안과 초조함이 교차된 밑줄로 의뢰진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조숙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편안하게 배려해주셨습니다. 수술 후 며칠 동안 소변이 나오지 않아 고생하는 환자를 보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해주셨습니다.

환자들이 의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 목숨이 나 자신에게 절대 적인듯 병원에서도 한낱 일의 과정에 불과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심정을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도 조숙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고운 마음을 지닌 선생님이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2월 11일

김광임 환자 남편 이주환 拜

동부병원
소식

자원봉사자
송년행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은 지난 12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근 연회장에서 '자원봉사자 송년행사'를 가졌다. 이번 송년행사에는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성동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팀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경일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고생해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다”면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부병원의 자랑이며, 여러분들이 있어서 동부병원이 빛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30여 팀과 개인봉사자 30명 등 1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1년 동안 동부병원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 활동을 했던 일들을 회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송년행사는 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여식으로 막을 열었다. 활동시간이 제일 많은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자원봉사자상', 부부가 활동하는 '베스트 커플 상', 각 팀별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한 팀에게 주는 '베스트 팀워크 상' 등 다양한 시상 항목을 마련하여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격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봉사자는 “내년에도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봉사자들을 위한 송년행사를 마련해 주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북부병원
소식

301네트워크 찾은 가정에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배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웅진)은 3일(화)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 연계센터)를 이용한 취약계층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를 배달했다.

김장김치는 병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담았으며, 미리 준비된 김치통에 옮겨 직원들이 손수 각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병원은 김장김치 배달과 함께 환자의 영양 관리와 건강상태도 함께 체크했으며, 병원을 이용해야 할 상황인 경우 다시 병원으로 내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301네트워크를 찾는 환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라도 균형 잡힌 영양 관리나 사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북부병원은 301 네트워크를 이용한 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추후 관리를 위해 상시 가정 방문을 지속하고 있다.

북부병원 권웅진 원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작은 정성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만큼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게시판 S e o u l M e d i c a l C e n t e r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12.01	정선화(병동간호팀)	12.01	허서영(병동간호팀)
12.01	이다숨(병동간호팀)	12.01	차은비(병동간호팀)
12.01	김다숨(병동간호팀)	12.01	박미정(외래간호팀)
12.01	임은정(특수간호팀)	12.01	최 란(특수간호팀)
12.01	김보미(외래간호팀)	12.01	곽인혜(병동간호팀)
12.09	조인호(재활의학과)	12.09	김나경(재활의학센터)
12.09	고은정(정신건강의학과)	12.09	장경주(식당)
12.16	유미선(간호부)	12.16	엄민지(간호부)
12.16	강아현(간호부)	12.16	이솔지(간호부)
12.16	박율리(간호부)	12.16	추진성(간호부)
12.16	김윤정(공공의료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04	박상순(병동간호팀)	12.10	양소영(특수간호팀)
-------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12.08	성정(특수간호팀)	12.15	김정훈(의학연구소)
12.15	김정근, 이정은(계약심사팀, 건강증진센터)		
12.22	양지윤(치과)		

언론 속
서울의료원

신문

- 경향신문(12.5):서울의료원 6일 '더샵 콘서트' 강좌
- 경향신문(12.6):서울의료원-시설공단 '장례문화' 조성 손잡았다
- 국민일보(12.6):서울의료원, 급성관상동맥중후군 환자 위한 '더샵 콘서트' 개최
- 뉴시스(12.10):서울의료원, 노숙인 위한 의료지원 심포지엄 개최
- 헬스코리아뉴스(12.10):서울의료원, 11일 공공의료 심포지엄 개최
- 뉴시스(12.13):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착한병원? 똑똑한 병원입니다”
- 서울신문(12.14):어머니 돌봐준 환자안심병동 고마워요
- 연합뉴스(12.16):서울의료원, 가락시장 상인 독감 무료접종
- 세계일보(12.23):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운영 호응
- 국민일보(12.24):생의 끝자락, 위로를 전하고 떠나다... 어느 동양화가의 '웰다잉'

방송

시사 교양

- KBS 1라디오 '라디오 중심, 이규원입니다'(11.28):가족 간병 실태와 대책 (보호자 없는 병동 현장취재)
- KBS 1TV '명의 3.0'(12.6):거울에 위험한 질환 - 뇌혈관 질환 (재활의학과 오주선 과장 출연)

드라마

- KBS 2TV '예쁜 남자'(12.5)
-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12.14)
- MBC '빛나는 로맨스'(12.24)

